



# 더 애절한 사랑이 온다



안은진

MBC 드라마 '연인' 13일 파트2 공개

남공민

“꼭 아름다운 장현과 길재의 사랑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남공민)

애절한 설렘을 더한 MBC 로맨스 사극 '연인'이 오는 13일 파트2로 돌아온다. 시청자들은 드라마 속 복선을 찾아 해석하며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추측을 제각기 내놓고 있다.

가장 큰 단서로 꼽히는 것은 극본을 쓴 황진영 작가가 모티브를 얻었다고 밝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다. 1936년 책으로 출간됐고, 3년 후 할리우드에서 동명의 영화로 제작됐다.

드라마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비슷한 캐릭터 설정을 가져왔다.

재미로 동네 사내들을 쥐락펴락하는 양갓집 구수 유길재(안은진 분)는 농장주의 딸로 남자들을 한 손에 쥐고 흔드는 스칼렛 오히라를 닮았고, 승산 없는 전쟁을 반대하는 비혼주의자 이장현(남공민)은 레드 버틀러를 연상시킨다.

길재의 첫사랑인 남연준(이학준)은 애슬리 윌크스를, 성격이 온화하고 현명한 경은애(이다인)는 멜라니 윌크스를 떠올리게 한다. 유길재를 짝사랑하는 구원무(지승현)는 스칼렛의 두 번째 남편 프랭크 케네디를 닮았고, 전쟁 전 길재에게 정혼한 공순약(박종옥)은 스칼렛의 첫 번째 남편인 찰스 해밀턴과 캐릭터 설정이 비슷하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레드 버틀러는 스칼렛 오히라의 세 번째 남편이 되지만, 둘은 결국 파경을 맞는다. 드라마가 비슷한 결말을 따른다면 내내 어긋나던 유길재와 이장현의 인연은

병자호란 배경 잇갈리는 인연 다뤄  
드라마 속 복선 찾아 결말 해석 분분  
파트2는 청나라서 환향한 이들 이야기  
“뜨거운 관심, 아름다운 사랑으로 보답”

결국 끝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장현과 유길재가 돌고 돌아 결국 해피엔딩을 맞이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1화에 나오는 길재의 꿈이 그 복선으로 읽힌다.

꿈속에서 길재는 바느질하다가 실타래를 땅에 떨어트리는데 하염없이 굴러가는 실타래를 쫓아 달리고 달린다.

꿈속에서 길재가 달리던 눈 덮인 길은 장현이 위험에 빠진 길재를 구해줬던 곳이고, 길재가 건넌 개울은 파란 중 장현이 길재를 안고 건넌 곳이다.

꿈속 가을 숲길은 청군 밀정이 된 장현이 숨어있던 길재를 보게 된 장소고, 청보리밭은 둘이 처음으로 입을 맞춘 곳이다.

결국 그 실타래가 멈춘 곳은 '꿈속 낭군님'의 발 옆이다. 험난하고 고된지연정 결국 둘의 사랑은 이뤄질 것이라는 단서로 읽힌다.

황진영 작가의 전작 '제왕의 딸 수백향',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등이 모두 혼란한 상황 속에 끝내 이뤄지는 사랑을 그렸

는 점도 해피엔딩이라는 예측에 힘을 실는다. 한편 첫 회에 등장한 옥에 갇힌 백발 인물의 정체도 궁금증을 모은다.

이장현과 관련된 조사를 하던 지평 신이립은 광증 환자들을 모아둔 곳에 찾아가 '선 세자저하의 총복'이라고 우기는 자를 찾아왔다고 말한다.

지평 신이립이 만나러 온 백발의 인물은 수년 동안 '장현이 자신을 데리러 올 것'이라는 같은 말만 주절거렸다고 한다. 뒷모습 밖에 비치지 않았지만, 장현을 기다리는 이 인물이 이장현과 함께 세자의 곁에 머물렀던 랑음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일부 시청자들은 역사책에서 결말의 단서를 찾기도 한다. 병자호란 후 청나라로 끌려갔던 소현세자는 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지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다.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독살설까지 제기됐었다. 인조는 소현세자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봉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하는데, 소현세자의 아들들은 귀양을 가게 되고, 세자빈이었던 강씨는 사약을 받는다.

소현세자를 따라 청나라로 간 이장현도 세자의 죽음 이후 숙청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장현이 바닷가에서 수십명의 병사들을 홀로 대적하는 드라마 첫 장면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제작진은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로 끌려간 이들의 이야기가 장현과 길재의 운명과 얽여 전개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연합뉴스

## 극장가 승자는 '천박사'

추석 연휴 136만명...2위는 '1947 보스톤'



영화 '천박사' 티마 연구소:설경의 비밀

올해 추석 연휴 대목을 맞은 극장가의 승자는 강동원 주연의 '천박사 티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 (이하 '천박사')이었다.

3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개봉한 '천박사'는 이달 2일까지 9새 동안 136만여명의 관객을 모아 연휴 기간 상영작을 통틀어 1위를 차지했다.

귀신의 존재를 안 믿는 가짜 퇴마사 천박사(강동원)가 막강한 능력의 귀신 범천(허준호)과 운명의 대결을 벌이는 이야기인 영화는 코미디, 액션, 오컬트, 모험 등의 요소를 고루 갖춰 오락성을 극대화했다.

인기 배우 강동원을 전면에 내세운 것도 주효했다. 그는 능청스러운 사기꾼 연기로 웃음을 자아내고, 액션 장면에선 긴 팔다리를 활용해 시원한 느낌을 준다. 흥행작인 '검사와전' (2016)과 '전우치' (2009)에서 그가 연기한 캐릭터를 연상케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천박사'와 같은 날 개봉한 강제규 감독의 '1947 보스톤'은 전날까지 65만여명의 관객을 모아 '천박사'의 뒤를 이었다.

이 영화는 해방 직후인 1947년 한국의 마라톤 선수 서윤복(임시완)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영웅 손기정(하정우)의 지도를 받아 미국 보스톤 마라톤대회에 진출해 태극기를 달고 우승한 이야기로, 실화를 토대로 했다.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인 데다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장면이 없어 연휴 기간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좋은 영화라는 평가를 받았다.

해의 로케이션 분량이 많은 이 영화는 제작비가 210억원에 달하고, 손익분기점은 450만명이다.

'천박사'에 밀려 손익분기점 돌파에 일단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태지만, 관객들의 호평을 바탕으로 뒷심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천박사', '1947 보스톤'과 지난달 27일 나란히 개봉한 김지운 감독의 '거미집'은 전날까지 24만여명의 관객을 모아 3위였다.

'거미집'은 1970년대 한국의 영화감독 김열(송강호)이 '거미집'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다 찍어놓은 상황에서 결말만 바꾸면 결말이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재촬영을 밀어붙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블랙 코미디인 이 영화는 1970년대 영화 촬영 현장을 배경으로 색다른 이야기를 그린 데다 송강호, 임수정, 오정세, 전여빈, 정수정 등 배우들의 연기 앙상블도 볼 만하다.

한편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닷새간 극장 관객 수는 258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나흘간(9월 9~12일) 관객 수 373만여명에도 크게 못 미치는 규모다.

/연합뉴스

## 이효리, 6년 만에 신곡 발매

12일 디지털 싱글 '후디에 반바지'

가수 이효리(사진)가 오는 12일 디지털 싱글 '후디에 반바지'를 발매한다고 소속사 안테나가 지난 3일 밝혔다.

이효리가 자신의 이름으로 신곡을 내는 건 2017년 정규 앨범 '블랙' (Black) 이후 6년 만이다.

이효리의 컴백 소식이 팬들의 반응을 뜨겁다. 지난 2일 공개된 '후디에 반바지' 무드 필름 영상에는 팬들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저녁, 벽에 기대어 선 이효리는 스모키 화장으로 시크한 카리스마를 발산해 공백이 무색할만큼 여전한 매력을 자랑했다.

디지털 싱글 '후디에 반바지'는 올해 초 이효리가 안테나에 합류한 뒤 처음으로 선보이는 신곡이기도 하다.

안테나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이효리만의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 직항로 개설 카페리어객선 6월 26일 취항

# 해남군 우수영 ↔ 신안군 장산 축강 30분대 신의 동리 50분대

## 사통팔달 해상교통의 관문 → 해남군 우수영항

###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대교 → 30분 소요 남해고속도로 서영암 IC



☎(유)신진해운 061)244-0522